

# 벼랑끝 경제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성장을 전망치부터 하향되고 있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작년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1.70%)보다 낮다.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장기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를 우리 경제의 대내 변수로 꼽았다. 대외 변수도 우호적이지 않다. 달러화 강세, 미중 무역 분쟁, 미 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 부정적인 이슈가 수두룩하다.

주요 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회 예산정책처 2.2%, 산업연구원 2.1%, 한국개발연구원(KDI) 2.0%, 한국은행 1.9%,

현대경제연구원 1.7% 등이다. 나라 밖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 사람의 무모한 선택이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 화재’ 상황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소비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 지갑을 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2003년(-3.1%) ‘신용카드 사태’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소비 절벽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구재(자동차·가전 등)와 준내구재(의복 등), 비내구재(음식료품 등)를 포함한 모든 상품군에서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는 작년 12월 통계가 더해지면 연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투자심리도 심상치 않다. 국내 기업들의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심리가 최근 10년 새 최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최근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R&D 계획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R&D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RSI는 지난해 11월 투자 부문에서 94.6, 인력 부문에서 93.7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하지만 12월 이뤄진 조사에서는 각각 79.6, 84.2로 나타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확인됐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금융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인 신년인사에서 “IMF 금융위기(1997년)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넘겼고,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극복했다”면서 “이번 정치적 위기는 금융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업계가 흔들림 없는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대내외에 알리려 한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믿는다”고 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어둠을 만들었지만 금융이 빛을 향하고 있다. 한강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빛을 향하고 있다면 어둠이 없다’고.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 가상화폐, ‘불장’ 조심해야



**김지수첩**  
이 승 웅  
(금융부)

지난해 반감기와 더불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친 가상화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는 1560만명을 돌파, 일평균 거래대금만 15조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인기 속 주변에서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1000만원 벌었다”, “도지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 벌었다” 등 가상자산 불장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한 사례들이다.

실제 이들 코인들은 지난해 최소 150%에서 500% 넘게 폭등한 종목이다. 코인으로서 가치가 있고,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

들이다. 문제는 과도한 자신감이다. 불장으로 인해 내가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서 투자액이 커지게 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빛내서 투자(빛투)’한다.

실제 비트코인을 투자자하고 있는 A씨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지난해 9월 5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A씨는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자 12월 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처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랐고, 추가 매수를 결심한 A씨는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총 1억원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하지만 A씨가 추가 매수한 시점은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은 1억5700만원이었고, 수익대신 대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 B씨 역시 도지코인으로 높은

수익을 챙겼지만 페페코인 즉 ‘뱀코인’으로 인해 수익 전부를 잃었다.

페페코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X 프로필 사진으로 인해 장중 한때 900% 폭등한 코인이다.

B씨는 페페코인 상승이 일론 머스크라 때문이라는 소리만 듣고 매수했지만 몇분 뒤 가격은 다시 안정화를 찾으면서 B씨는 -100%라는 처참한 화면만 봤다.

이처럼 불장에서의 투자는 하락장에서의 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서 불잡히기 때문이다.

‘마이아스의 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일이든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투자시장에서 ‘마이아스의 손’이 되기 위해서는 불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하락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잘 잡는 것이다. 불나방 처럼 뛰어들게 되면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lsy2665@

오늘의 운세 1월 17일 (음 12월 1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48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 **60년생** 만화할 타이밍을 놓치지 쉽다. **72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84년생** 일취일장할 기회가 주어지지니 최선을 다하라.



**37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잘못도 생각. **49년생** 선봉에 나서면 구설이 따른다. **61년생** 삼의 중심에 겸손하라. **73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다. **85년생** 소금장사 떠나는데 비 내리니 잠시 지체물.



**38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은 문서로. **50년생** 집착보다는 무관심이 오히려 편하다. **62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 된다. **74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운전 주의. **86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한다.



**39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내면 길하다. **51년생**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63년생** 장미꽃 같은 화려한 날이다. **75년생** 결심은 늘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 **87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40년생**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다 큰코다친다. **52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64년생**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상관계이다. **76년생**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 지니 호기인 하루. **88년생** 뱀사자 황새 따라가다 다리가 어찌 될까.



**41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53년생** 결과는 노력이 가져온다. **65년생** 사람 앞에서 자랑보다는 지출하라. **77년생** 거친 파도를 만나지만 튼튼한 배가 있어 걱정 없다. **89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



**42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다. **54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니 불청객이다. **66년생** 도움을 줘도 당연시하는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한다. **78년생** 빈수레가 요란하니 공부물. **90년생** 삼각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니 조심물.



**43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55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지속해서. **67년생** 친구의 병문안 갈 일이 있다. **79년생** 오늘은 느긋하게 행동하라. **91년생** 다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겸손하게.



**44년생** 후배가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56년생** 최선을 다해도 못하면 내일이 있다. **68년생** 송풍에 돛달 듯 평화로운 하루. **80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니 분노를 조절. **92년생** 시장이 반천이니 즐겁게 일해보라.



**45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도 곧 끝 될 것이다. **57년생** 힘든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69년생** 사랑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81년생** 투자하려는 얘기는 빛 좋은 개살구일 듯. **9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어 봤자이다.



**46년생** 내가 도와준 아저의 후배가 경쟁자로 나타난다. **58년생** 내가 좋다고 남에게도 강요하지 마라. **70년생** 쓸모없는 듯한데 쓸모 있게. **82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힘을 합쳐야만 한다. **94년생** 보통은 꿈도 못 꿀 일을 해낸다.



**47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자. **59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71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해. **83년생** 본 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발길 조심. **95년생** 겸손하면 길함이 더 많게 되는데 세상 이치.



## 김상회의四季 좋은 관상은 어떤 상일까

사람의 얼굴은 많은 걸 보여준다.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인성이 어떤 사람인지도 짐작할 수 있다. 감추려고 해도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로 사람을 읽는 게 가능하다. 관상은 과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상이 좋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환영받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흔히 말하는 좋은 관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이다. 이목구비가 균형을 이루면 좋고 더해서 키와 체격까지 균형을 갖추면 더 좋다. 관상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눈이다. 눈에는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있는데 검은자위가 크면 좋은 관상으로 본다. 눈빛도 무척 중요한데 눈빛이 운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다. 코는 반듯하고 힘 있는 형상이 좋다. 코뼈가 곧게 내려오면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을 훌륭히 잘 해내서 성공하는 상이다. 콧구멍은 일그러지지 않고 동그런 모양이 좋는데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면 재물이 흘러나간다. 코끝이 뭉툭하고 둔둔하게 자리한 상은 재물이 모여든다. 귀가 큰 사람은 귀한 신분이 된다. 삼국지에서 유비의 귀가 무척 길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상이라는 걸 의미한다. 귀가 두껍고 크면 총명하다. 입은 작은 것보다 큰 게 좋고 입술은 도톰할 정도의 두께가 좋다. 관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얼굴만이 아니다. 관상을 만들어 주는 마음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인상이 좋아지고 나쁜 마음을 품고 살면 인상이 무서워진다. 관상을 만드는 건 곧 마음인 것이다. 나이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관상의 기본을 보여준다.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관상이 달라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1			9	5			
	3			8	2			1
8		1		6		9		2
								7
		2	7		8	4		
	7							
7		6		3		8		5
4			5	7			9	
		5	8				4	7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 할인도서

4	7	9	8	2	8	9	6	1
8	6	2	1	2	9	8	9	7
9	1	8	9	6	9	2	2	2
7	2	8	9	9	1	8	2	6
6	8	7	8	1	2	2	9	9
9	2	1	9	6	2	7	8	8
2	9	6	2	9	8	1	7	8
1	9	2	2	8	7	6	8	9
8	8	9	6	7	9	2	2	2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9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